

##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에서 아동기 역경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노 명 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최 현 정<sup>†</sup>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 문제에서 예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동기 빈곤 경험과 초기 성인기 삶의 질 문제에서 아동기 역경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참여자는 온라인 패널을 통해 모집한 지역사회 표본으로,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20대 - 30대 성인 292명의 횡단 자료를 사용하였다. 성인기 경제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평균 가계 소득 중위 60% 이하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자료를 균등하게 수집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의 정의를 토대로 측정된 아동기 빈곤 경험의 보고와 현재 삶의 질 사이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현재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을 거치지 않고도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성인기 삶의 질과 관련 있었다. 이를 토대로 빈곤 환경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역경을 조기에 탐지하고, 다양한 교육 및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특히 정서조절 역량을 함양하는 전략이 이들의 성인기 삶의 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빈곤, 아동기 역경, 정서조절, 삶의 질

\* 이 논문은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영역 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의 예비 분석은 2025년 한국임상심리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E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현정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Tel: 043-261-2179 / E-mail: hchoi@g.cbnu.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전 세계 약 11억 명이 극심한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 중 5억 8,400만 명은 18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24). 대한민국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24). 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은 객관적 수치 및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빈곤은 주관적인 동시에 사회적 경험으로서, 빈곤의 역동성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성호, 2012). 예를 들어, 빈곤에는 의식주나 의료서비스 등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중위소득 50% 이하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그리고 건강, 교육, 생활 수준 등 다양한 측면으로 조망한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이 있다(Bellù & Liberati, 2005). 본 연구는 특히 아동기에 경험한 다차원적 빈곤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아동기 빈곤은 양육 환경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더하여 매우 구체적인 자원 박탈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Notten & Roelen, 2012), 부모의 교육 수준과 근로 상태, 거주 공간의 밀집도, 의식주 및 교육 경험에서 자원 부족, 가정 경제 수준에 관한 주관적 판단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할 수 있다(Walsh et al., 2019).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문화와 가치체계 맥락에서 삶의 목적, 기대, 기준,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위치 지각으로서, 신체 및 심리 건강, 긍정적 사회관계, 환경 자원을 포함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을 일컫는 개념이다(The WHOQOL Group, 1998). 한 개인의 삶의 질은 아동기 빈곤 경험을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자원보존이론(Hobfoll &

Schumm, 2002)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원보존 이론에 따르면 발달 과정에서 적정한 자원을 확보한다면 향후 지속적인 자원 획득 기회가 이어져 발달과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에 비하여, 발달 과정에서 자원을 박탈당한 경험은 이후 자원 확보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이러한 자원 박탈 누적과 연쇄 작용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 문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기 빈곤 환경은 발달 과업에서 자원 박탈을 야기하고, 순차적으로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증적으로, 어린 시절 자원 박탈 환경에 놓인 아동은 더 불리한 생활 조건에 처하여 신체적, 심리사회적으로 저하된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ong et al., 2015). 아동기 빈곤은 부족한 환경 자원의 문제, 예를 들어, 태내 유해 물질에의 노출, 거주 공간의 가구원 밀집 및 소음 문제, 학습 및 두뇌 자극의 부족, 높은 비율의 지역사회 폭력 발생, 부모와의 이별, 가족 내 갈등, 타인과 사회적 위치 비교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매개로(Evans & Cassells, 2014; Evans & Kim, 2012) 성인기 심리적 문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Patel et al., 2018).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전반적인 신체 및 정신건강의 연관성은 횡단연구는 물론(Lee et al., 2021), 아동기 빈곤으로 성인기 외현화 행동 문제를 예측한 종단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Ziebold et al., 2023). 국내 근거도 마찬가지로, 횡단연구를 통해 빈곤 환경에 더하여 누적된 위험 요인이 아동의 우울, 불안,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장희선, 김기현, 2014)과 청년의 자해 및 자살 행동에 미치는 영향(박찬희 등, 2024)이 보고되었고, 종단연구에서 빈곤 가구의 아동은 비(非)빈곤 가구 아동에 비교하여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후기에 이르러

공격성이 높아지는 발달 궤적을 보였다(김동하, 2016). 이처럼 아동기 빈곤 경험은 다양한 측면을 통해 장기적인 삶의 질 문제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있다.

궁극적으로, 빈곤한 환경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져 건강과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킨다(Li et al., 2025). 아동기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에 머물지 않고(Chaudry & Wimer, 2016), 돌봄 환경의 불안정성, 학대, 방임 등 다양한 아동기 역경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Farooq et al., 2024). 나아가 역경 경험은 평생에 걸쳐 정서 발달 및 사회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erzog & Schmahl, 2018). 이러한 심리사회적 경로를 고려할 때, 아동기 빈곤을 예방하는 것은 1차 예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더하여, 빈곤 환경의 아동을 위한 2차 예방책으로 역경의 방지 및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예방 개입(Caplan, 1993)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기 개입과 예방 전략의 중요성을 배경으로,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 변인을 탐색할 것이다.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사이에 존재하는 변인 중 특히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변인에 주목한 배경은 이후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기 빈곤과 아동기 역경 경험은 높은 비율로 동반 발생하고, 두 경험 모두 성인기 정서조절문제와 삶의 질 문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

우선, 아동기 역경 경험은 아동기에 신체, 정서, 성학대, 방임, 또래 폭력을 겪거나, 가정

내 폭력을 목격하거나,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 혹은 수감 및 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 구성원과 거주하는 경우, 혹은 지역 공동체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Felitti et al., 1998)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 발달, 가족 특성을 조사한 대규모 데이터를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 경제적 어려움에 동반하는 경험 중 아동기 역경은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Crouch et al., 2019a). 마찬가지로, 저소득과 노숙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동과 어린 시절 중산층 이하의 지역에서 빈곤을 경험한 성인은 더 높은 빈도와 강도로 빈곤에 더하여 추가적인 역경 경험을 보고하였다(Giovanelli et al., 2016; Radcliff et al., 2019). 아동기 역경 경험은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환경적 측면의 삶의 질을 저해하여(Leiting et al., 2024), 성인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efer et al., 2018). 특히 저소득층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의 삶의 질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는데(Salinas-Miranda et al., 2015), 이렇듯 아동기 빈곤과 더불어 발생한 아동기 역경 경험에서 자원 박탈은 성인의 삶의 질에 광범위한 위협을 제공할 수 있다.

상기 내용처럼 아동기 빈곤과 역경 경험은 빈번히 동시에 관찰되지만, 두 변인은 각기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성인기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Evans, 2016; Vederhus et al., 2022). 아동기 빈곤은 다차원의 개념과 더불어 절대적, 상대적 차원을 포괄한다(Bellù & Liberati, 2005). 이와 다르게 아동기 역경 경험의 개념은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며(Wade et al., 2014), 아동기 빈곤과 무관하게 성인기 심리적 어려움

과 정서조절문제를 예측하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졌다(Huang et al.,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에 근거하여 자원 박탈의 연속, 즉, 아동기 빈곤이 역경에 선행하고, 빈곤과 역경이 성인기 정서조절 역량을 저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두 변인을 구분하고,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을 위한 개입의 시사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정서조절문제는 여러 정신병리의 기저 문제로 주목받은 범진단적(transdiagnostic) 개념으로(Sloan et al., 2017), 정신건강 측면에서 개인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서조절의 역기능적 상태를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이라고 볼 수 있다(Cole et al., 1994). 구체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은 충동 통제 곤란,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목표지향적 행동 수행의 어려움을 포괄한다(Gratz & Roemer, 2004). 아동기 빈곤 및 역경 경험은 모두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정서조절문제와 관련된다는 근거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아동기 빈곤은 신경인지 발달 문제를 초래하고, 정서와 행동조절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Palacios-Barrios & Hanson, 2019). 마찬가지로, 아동기 역경 경험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기능 문제를 초래하고, 두뇌 신경 연결을 약화하여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Kalmakis et al., 2015; Pagliaccio et al., 2015).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양육자가 아동의 정서 표현을 수용하거나 정서조절을 도와주는 정서사회화 과정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Morris et al., 2007). 그러나 아동기 빈곤이 만연한 환경은 양육자의 심리적, 정서적 여유를 감소시켜,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거나 지원하기 어렵게 만든다(Conger et al., 2002). 그 결과, 아동은 장기적으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발달시키게 되며(Raver et al., 2015),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Liberzon et al., 2015). 성인의 정서조절 능력 저하는 낮은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 있고(Extremera & Rey, 2015),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의 삶의 질, 즉,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고통, 대인관계 역기능 등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ggi & Kumari, 2024; Poole et al., 2018; Rudenstine et al., 2019). 이렇듯 아동기 빈곤과 역경 경험이 각각 정서조절문제의 위험 요인이고, 정서조절문제는 삶의 질을 설명하는 매개 요인임이 밝혀진 바, 아동기 빈곤과 역경 그리고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이 성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으로 초기 자원이 박탈되었던 성인의 삶의 질 문제의 악순환을 끊고 2차 예방책을 고안하기 위하여, 아동기 역경 경험과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누적적 자원 박탈 현상을 중심으로 한 모형(그림 1)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 전환기인 초기 성인기(20대-30대)에 주목하여 이 시기 유용한 예방 전략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빈곤 경험은 아동기 역경 경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아동기 빈곤 및 역경과 성인의 삶의 질 저하 사이에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이 매개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성인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변인으로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소득 수준(Bonsaksen, 2012; Han et al., 2014; Magnuson & Votruba-Drzal, 2009; Stryzhak, 2020; Umeda et al., 2015)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구통계 변인을 통제했을

때에도 아동기 다차원적 빈곤 경험과 아동기 역경 경험은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인구통계 변인 중 특히 성인기 소득 수준은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오랜 기간 심리적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제시되어 왔다(Kaplan et al., 2008). 살펴본 상기 내용에서 아동기 빈곤 및 역경 경험의 영향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 및 역경은 성인기 소득 수준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추가 검증을 통해 성인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주요 변인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기 환경과 성인기 사회경제적 조건이 성인기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아동기 빈곤 경험과 성인기 삶의 질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사용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심리적 가용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 빈곤 혹은 역경을 함께 경험한 성인의 심리적 자원 활용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및 예방 개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CBNU-2024-A-0033). 온라인 패널에 설문조사를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연구 설명서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별 기준은 아동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한 20대-30대 성인으로, 선별을 위한 질문으로 Doidge 외(2017)를 참고하여, “어린 시절(18세 이전)에 우리 집은 경제적 어려움(가난)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었다.”에 전혀 아니다(0), 아니다(1), 그런 편이었다(2), 그렇다(3), 매우 그렇다(4)의 5점 리커트 척도에서 ‘그런 편이었다(2)’ 이상으로 평정한 사람으로 하였다. 성별 정보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젠더 다양성(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등) 중 참여자가 직접 보고한 값을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조사 시점인 2024년 보건복지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건복지부, 2023)에 따라 월 평균 가계 수입과 가구원 수에 근거하여 현재 경제 수준을 다양하게 확보하였다. 우선, 가구원 수에 기초한 월평균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200명의 자료를 먼저 수집하였고, 이어서 성인기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추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 응답 사전 예방책으로, 장재윤 외(2024)에 따라 평균 응답 속도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은 응답 시간을 보인 응답자는 불성실 응답으로 제외하였다. 이에 401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추가 불성실 탐지를 위한 일관성 지표에 따라(장재윤 외, 2024), 동의어를 사용하는 문항에서 응답이 반대되는 경우 27명, 역문항에 같은 응답을 한 경우 53명, 문항에 모두 일괄 응답을 한 경우 6명을 포함한 응답 109명을 제외하여 총 292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아동기 다차원 빈곤 경험

만 18세 이전 아동기 빈곤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Doidge 외(2017), Walsh 외(2019)를 참고하여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고용 상태, 주거 환경, 취미 생활, 교육 경험, 의식 경험, 돌봄 경험에 관한 경험을 묻는 17문항(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이 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하여 힘들었습니까?, 어린 시절 살던 동네는 낡고 오래된 집이 많아 불안하거나 다니기 불편했습니까?)을 제작하여 아동기 빈곤 경험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이분법(관련 있음: 1, 관련 없음: 0)으로 답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다차원적으로 아동기 빈곤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6으로 나타났다.

### 아동기 역경 경험

만 18세 이전 아동기 역경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Felitti 외(1998), Teicher와 Parigger(2015)를 참고하여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성학대, 부모와의 이별, 가구원의 약물남용, 가정폭력 목격, 가구원의 수감, 가구원의 정신질환, 또래 폭력, 지역사회 폭력에 관한 경험을 묻는 13문항(정서적 방임 예: 부모/보호자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 나의 어려움이나 걱정에 대해 거의 혹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아껴주거나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나, 혹은 부모/보호자가 내가 학교에 안 가거나 하는 자유 시간에 무얼 하는지 거의 혹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을 제작하여 아동기 역경 경험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이분법(관련 있음: 1, 관련 없음: 0)으로 답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는 총점이 높을수록 여러 유형의 아동기 역경 경험을 겪은 것을 의미한다. 아동기 역경 경험 유형의 개수는 정신건강 및 삶의 질 문제를 예측하는 유의한 지표로 검증되었으며(Felitti et al., 1998), 총점으로 추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삶의 질

민성길 외(2000)가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WHOQOL-BREF])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일반 건강 2문항(예: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을 포함한 총 26문항으로, 신체적 건강 7문항(예: 신체 통증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방해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심리적 건강 6문항(예: 삶을 즐기십니까?), 사회적 관계 3문항(예: 사적인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환경 8문항(예: 일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다 및 매우 불만족 등 = 1, 매우 많이 그렇다 및 매우 만족 등 = 5)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민성길 외(2000)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 정서조절곤란

한국 표본에서 타당화 되었으며(조용래, 2007),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사용하였다. 충동통제곤란 5문항(예:

나는 감정에 압도되고 감정을 통제하기 힘들다고 여긴다.),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의 부족 8문항(예: 나는 내 느낌을 선명히 잘 느낀다.),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7문항(예: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3문항(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8문항(예: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오랫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지향적 행동 수행의 어려움 5문항(예: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다.)의 6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 매우 그렇다 = 5)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조용래(2007)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7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자료는 SPSS 2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본 및 자료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Cohen(1988)의 기준을 참고하여 0.1(작음), 0.3(중간), 0.5(큼)의 효과 크기를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성인기 소득 수준(1: 조사 시점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집단; 이하 저소득 집단, 0: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변인에 해당하는 연령, 교육년수, 배우

자 유무(1: 사별, 별거, 이혼, 미혼, 0: 배우자 있음, 동거), 성인기 저소득(1: 저소득 집단, 0: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후, 모형을 검증하고자 Hayes(2022)의 PROCESS macro v4.3 model 6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95% 신뢰구간으로 5,000번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하였다.

## 결 과

### 인구통계학적 분석

인구통계 변인의 기술분석에 따르면 성별은 남성은 150명(51.4%), 여성은 142명(48.6%), 트랜스젠더 및 성별 다양성은 0명(0%)이었다. 평균 연령은 32.36세( $SD = 4.67$ )로 20대는 81명(27.7%), 30대는 211명(72.3%)이었다. 교육년수의 경우, 평균 14.72년( $SD = 1.59$ )으로 12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44명(15.1%), 대학 재학 이상은 248명(84.9%)이었다. 조사 시점 월평균 소득이 대한민국 전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집단은 148명(50.7%),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은 144명(49.3%)이었다. 또한 배우자가 있거나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는 84명(28.8%),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08명(71.2%)이었다.

정신건강서비스 사용 현황은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필요 없어서 경험 없는 사람은 136명(46.6%), 원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은 74명(25.3%), 무료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은 41명(14%), 유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37명(12.7%), 정신건강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은 18명(6.2%), 무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람은 16명(5.5%), 유료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은 11명(3.8%)이었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과 성인기 소득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주요 변인인 아동기 빈곤, 아동기 역경 경험, 정서조절곤란, 삶의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평균 5개의 아동기 빈곤 경험과 평균 4개의 아동기 역경 경험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아동기 빈곤은 삶의 질( $r = -.21, p < .001$ )과 작은 크기 부적 상관, 아동기 역경 경험( $r = .65, p < .001$ )과 큰 크기 정적 상관, 정서조절곤란( $r = .32, p < .001$ )과 중간 크기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아동기 역경 경험은 삶의 질( $r = -.17, p < .01$ )과 작은 크기 부적 상관을, 정서조절곤란( $r = .35, p < .001$ )과 중간 크기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은 삶의 질( $r = -.60, p < .001$ )과 큰 크기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인기 소득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아동기 역경 경험은 성인기 저소득 집단보다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았으

며( $t(290) = 3.33, p < .001$ ), 삶의 질은 성인기 저소득 집단보다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282.06) = -2.29, p < .05$ ). 아동기 빈곤( $t(290) = 1.87, m$ )과 정서조절곤란( $t(290) = 1.17, m$ )의 집단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의 삶의 질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의 삶의 질에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PROCESS macro model 6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은 인구통계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아동기 빈곤은 낮은 삶의 질( $\beta = -.20, p < .001$ )과 유의하게 관련 있었다. 또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 경험( $\beta = .64, p < .001$ )과 유의하게 관련 있었다. 정서조절곤란에 대하여 아동기 빈곤( $\beta = .19, p < .01$ )과 아동기 역경 경험( $\beta = .22, p < .01$ )은 유의하게 관련 있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 대하여 아동기 빈곤, 아동기 역경 경험, 정서조절곤란을 모두 투입했을 때, 통제된 인구통계 변인에서 연령( $\beta = -.13, p < .01$ ), 교육년수( $\beta = .13, p < .01$ )는 삶의 질과 상관을 보였고, 배우자 있음( $\beta = .05, m$ ) 그리고 성인기 저소득( $\beta = .08,$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M(SD)	왜도	첨도
1. 아동기 빈곤	-				5.23(5.19)	.70	-.64
2. 아동기 역경 경험	.65***	-			3.95(3.12)	.82	.52
3. 정서조절곤란	.32***	.35***	-		92.70(28.02)	.21	-.64
4. 삶의 질	-.21***	-.17**	-.60***	-	80.46(16.85)	-.11	.10

\*\*  $p < .01$ , \*\*\*  $p < .001$ .



표 2.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β	95% CI		F	R <sup>2</sup>
						LL	UL		
삶의 질	연령	-.20	.22	-.92	-.06	-.93	.23	5.53***	.09
	교육년수	1.29	.64	.64**	.12	.04	2.54		
	배우자 있음	5.20	2.20	2.36*	.14	.87	9.52		
	성인기 저소득	2.16	2.04	1.06	.06	-1.86	6.17		
	아동기 빈곤	-.66	.19	-3.56***	-.20	-1.03	-.30		
아동기 역경 경험	연령	-.11	.03	-3.64***	-.17	-.17	-.05	50.01***	.47
	교육년수	-.05	.09	-1.45	-.07	-.31	.05		
	배우자 있음	.26	.31	.82	.04	-.36	.87		
	성인기 저소득	-.48	.29	-1.67	-.08	-1.05	.09		
	아동기 빈곤	.38	.03	14.56***	.64	.33	.43		
정서조절 곤란	연령	-.68	.35	-1.96	-.11	-1.37	.00	10.48***	.18
	교육년수	.29	1.01	.29	.02	-1.70	2.28		
	배우자 있음	-9.32	3.47	-2.68**	-.15	-16.16	-2.48		
	성인기 저소득	1.43	3.24	.44	.03	-4.94	7.80		
	아동기 빈곤	1.04	.39	2.70**	.19	.28	1.80		
삶의 질	연령	-.47	.18	-2.62**	-.13	-.83	-.12	2.40***	.40
	교육년수	1.37	.52	.52**	.13	.35	2.40		
	배우자 있음	1.79	1.81	.99	.05	-1.78	5.36		
	성인기 저소득	2.59	1.67	1.55	.08	-.69	5.88		
	아동기 빈곤	-.20	.20	-.99	-.06	-.60	.20		
	아동기 역경	.54	.35	1.56	.10	-.14	1.22		
	정서조절곤란	-.37	.03	-12.15***	-.62	-.43	-.31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m*)은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에서 정서조절곤란은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beta = -.62, p < .001$ ), 아동기 빈곤( $\beta = -.06, m$ )과 역경의 영향( $\beta = .10, m$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아동

기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beta = .06, 95\% \text{ CI} = [-.04, .16]$ ),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2, 95\% \text{ CI} = [-.21, -.03]$ ). 마지막으로 아동기 빈곤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표 3.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beta$	SE	95% CI	
			LL	UL
총효과(아동기 빈곤 → 삶의 질)	-.20	.19	-1.03	-.30
직접효과(아동기 빈곤 → 삶의 질)	-.06	.20	-.60	.20
간접효과(total)	-.14	.06	-.25	-.03
아동기 빈곤 → 아동기 역경 경험 → 삶의 질	.06	.05	-.04	.16
아동기 빈곤 → 정서조절곤란 → 삶의 질	-.12	.05	-.21	-.03
아동기 빈곤 → 아동기 역경 경험 → 정서조절곤란 → 삶의 질	-.09	.03	-.15	-.03

주.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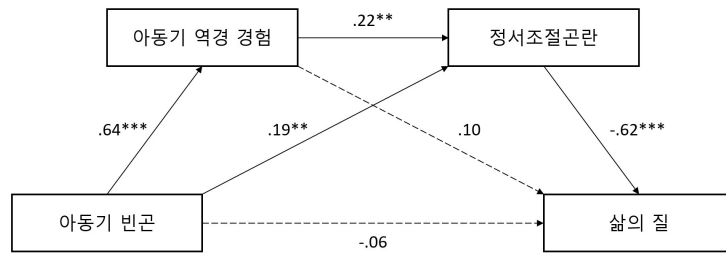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과 경로 계수

주. 유의한 경로는 실선,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준화 회귀계수를 표기하였음.

\*\* $p < .01$ , \*\*\* $p < .001$ .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9$ , 95% CI = [-.15, -.03]). 모형 검증 결과 경로 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의 관계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빈곤과 성인의 삶의 질 사이에서 아동

기 역경을 통해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가 발견되었다. 더하여 아동기 빈곤이 정서조절곤란만을 거쳐 성인의 삶의 질로 이어지는 매개 경로 또한 발견되었다.

모형 분석에서 통제된 인구통계 변인을 아울러 살펴보았을 때, 아동기 빈곤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삶의 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표본이 20대에서 30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기 청년기부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기 예방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아동기 빈곤은 교육년수가 낮을수록 낮은 삶의 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국내 대규모 청년세대 조사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 경험은 낮은 삶의 만족도 및 행복도와 관련 있었다(김지경, 2018). 종합해 보건대, 가능한 이른 발달 시기에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적 토대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동기에 자원 박탈을 경험했을 지라도, 광범위한 환경적 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인구통계 변인 중 배우자 여부는 삶의 질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 표본에 배우자와 동거라는 발달적 기대가 적은 20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성인기 저소득 경제 수준은 삶의 질과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삶의 질 사이에 성인기 빈곤이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Hernández & Zuluaga, 2022; Wise, 2016)와 다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추가 검증에서 성인기 저소득 집단은 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아동기 역경과 낮은 성인기 삶의 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직업적 활동 저조 및 저하된 삶의 질과의 관련성(Bürgin et al., 2023), 그리고 성인기 소득 잠재력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 중요성(Metzler et al., 2017)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더하여 성인기 소득 집단에 따른 아동기 빈곤 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경제적 수준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서조절곤란 또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 능력이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만 설명되기보다, 아동기 경험과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비롯되는 비교적 내적인 특성임을 시사한다. 즉, 성인기의 경제적 조건은 현재의 삶의 질 및 일부 발달적 경험과 관련될 수 있지만, 정서조절곤란은 아동기 역경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 분석에서 달리 나타난 결과는 청년이 경제, 교육 및 노동, 건강, 대인관계 문제 등 여러 인구통계 영역에서 중첩된 문제가 가중되는 다중 격차를 겪는다는 쟁점(변금선, 김기현, 2019)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즉, 여러 인구통계 변인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중요하며, 다양한 다중 격차 상황 속에서도 삶의 질을 설명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서조절곤란을 주요한 예방 및 개입 목표로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요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다차원적으로 측정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 경험과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빈곤과 역경 경험이 빈번하게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조사(Choi et al., 2019; Kim et al., 2023) 그리고 아동기 빈곤이 학대, 방임, 가족 기능 문제 등 여러 아동기 역경을 증가시킨다는 보고(Maguire-Jack et al., 2021; Mersky et al., 2021)와 일치하였다. 아울러 빈곤이라는 자원의 부재 혹은 박탈이 지속적인 손실의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자원보존이론(Hobfoll & Schumm, 2002)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빈곤 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돌봄을 고려할 때에는 역경 경험의 추가 노출에 대한 탐지와 개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기 빈곤은 성인기 낮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Conroy et al., 2010; Duncan et al., 2010; Evans & Kim, 2012; Lee et al., 2021; Wong et al., 2015)와 일치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간접효과 분석에 따르면, 아동기 빈곤과 성인기 삶의 질 사이에 직접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변인의 관련성은 아동기 역경 경험 혹은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빈곤과 정서조절곤란의 관련성(Barch et al., 2020; Kim et al., 2013; Liberzon et al., 2015), 아동기 역경과 정서조절곤란의 관련성(Kalmakis et al., 2015; Pagliaccio et al., 2015) 그리고 아동기 역경과 삶의 질을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한다는 선행논의(Jaggi & Kumari, 2024; Poole et al., 2018; Rudenstine et al., 2019)와 일치하였다. 특히 아동기 빈곤의 총효과가 간접효과에 의해 설명되는 결과는 아동기 빈곤 경험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아동기 역경 경험의 완화 및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을 감소시키는 개입을 통해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정서조절곤란 등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입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로, 아동기 빈곤은 아동기 역경을 매개하지 않고도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성인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선행 장기종단연구에서 빈곤 지역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기분 문제, 관계 문제, 행동 조절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tiago et al., 2011). 선행 개괄 연구는 빈곤이 아동의 신경인지 발달에 변화를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정서조절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Palacios-Barrios & Hanson, 2019). 또한 양육자가 겪는 경제 스트레스는 양육자 반응의 질을 낮춰 아동과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빈곤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 스트레스는 아동에게 특정 생리적 반응 시스템을 발달시켜 자기조절 과정을 방해한다고 하였다(Evans & Kim, 2013). 이는 곧, 아동기 빈곤 환경에 노출된 경우, 아동기 역경의 조기 탐지 및 체계적인 개입이 중요하며, 정서조절곤란에 대한 조기 개입 역시 장기적인 발달 경로에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원보존이론(Hobfoll & Schumm, 2002)의 관점에서 아동기 빈곤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원 박탈이 개인의 자기조절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아동기 빈곤과 아동기 역경 경험의 상관계수는 .65로 큰 효과 크기가 나타났다. 이는 앞선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환경의 아동은 역경을 함께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역경의 범주에 포함한 기존 문헌(예: Crouch et al., 2019b; Finkelhor, 2020; Lanier et al., 2018)과 다르게 두 변인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역경 경험 없이 빈곤 경험 자체만으로도 향후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국 아동기 빈곤 환경에 대한 개입은 아동기 역경에 대한 개입과는 다른 방식의 자원 제공 혹은 별도의 정책적 접근에 기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빈곤에 초점을 맞춘 풍부한 환경적 자

극을 제공하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선 지원책 마련의 차원에서 아동기 빈곤과 역경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서조절곤란은 성인기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아동기의 정서조절 능력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발달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ediger & Bellingrier, 2022). 이러한 점에서 정서조절곤란은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에서 개입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성인기의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정서조절문제를 조기에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규모 지역사회 조사에서 아동기 역경과 생애 건강 수준의 관련성을 보았을 때, 정서조절 능력이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밝혔다(Banyard et al., 2017). 그럼에도 실제 미국 정책에 관한 조사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저소득 및 역경 경험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적 개입보다 소득, 주택, 공과금, 음식 등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빈번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ee & Lawton, 2022). 마찬가지로, Wahlbeck 외(2017)는 빈곤 완화 및 청소년 보장과 같은 정책 수준의 개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사회복지정책 관련 연구에서도 인구통계 특성 변인보다 심리 정서 특성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보다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 집단과 같이 특정 정책적 대상이 되는 집단의 경우 성격적 특성 변인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변인에 더 주목하는 경향(김지경, 2018)을 보인

다. 단지 성격적 변인뿐 아니라, 정서조절곤란과 같이 개입 목표가 될 수 있는 심리학적 변인에 대한 탐구가 그간 필요했던 바,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빈곤 환경 혹은 이에 더하여 아동기 역경을 동시에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에 정서조절 기술 훈련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리적 역량 자원을 축적하는 심리학적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유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보건복지부, 2025) 등의 정책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 개입식 수행에 대한 타당한 평가 및 지속 진행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예방 측면의 개입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 효과성 연구의 개괄에서도 근거 기반 예방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정서조절, 긍정적 목표 설정, 의사결정 기술, 갈등 해결 기술 등 다양한 자기조절 기술 학습과 일반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 훈련 요소가 핵심적이라고 논의된 바 있다(Weissberg et al., 2003).

이렇듯 아동기 빈곤 및 역경 환경에서 심리학적 매개 변인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제약과 구조적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antiago et al., 2013; Steele et al., 2007).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확인한 정신건강서비스 사용 현황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사용을 원하지만 경험 없는 사람은 25.3%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경험 없는 사람을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서비스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무료 심리상담 경험은

14%, 유료 심리상담 경험은 3.8%로 심리상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는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웅(2023)의 심리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문제점으로 금전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심리적 자원 확보 기회가 필요한 초기 성인기 인구가 금전적 요인으로 인해 서비스 사용 기회의 접근성을 박탈당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기 자원 박탈 경험으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초기 성인의 심리 지원을 위해 이러한 치료와 개입 자원의 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 혹은 적극적 예방 개입의 활성화가 시급해 보이는 바, 공공 자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정책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이 성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기 역경 경험과 성인기 정서조절곤란의 간접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삶의 질은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생애사적 경험과 개인 내 심리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므로(Sinha, 2019),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로 외에도 다른 잠재적 매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자원 및 개인 내 심리적 자원은 물질적 자원 박탈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Hobfoll, 1989).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추가 보호 요인(Gill et al., 2025; Sanders et al., 2008)을 포함하여 모형과 더불어 예방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횡단연구로, 변인 간 인과적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다. 아동기 경험과 성인기의 심리적 특성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향후 종단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훈련을 포함한 심리학적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아동기 빈곤 혹은 역경을 경험한 성인의 삶의 질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 및 역경 경험을 측정할 때 특정한 경험 유형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강도, 발생 시기, 지속성 등의 세부적인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괄하고, 아동기 빈곤 및 역경의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아동기 빈곤을 단순한 경제적 지표로 해석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자원 박탈 경험으로 해석하고 다차원적 경험을 포괄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아동기 빈곤과 역경의 개념을 구분하여 영향력을 탐색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자원보존이론을 토대로 아동기 빈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원 상실 경험이 이후 성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기 역경의 탐지와 조기 정서조절 역량 프로그램에 관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하 (2016).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 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잠재계층 비교: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6(1), 89-117.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1.89>
- 김석웅 (2023). 심리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 설문조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3), 547-562.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06196](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06196)
- 김지경 (2018). 청년세대 삶의 인식 수준과 행복도의 영향요인. *한국사회정책*, 25(3), 209-245.  
<https://www.riss.kr/link?id=A105614000>
- 보건복지부 (2023.12.27).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73호: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 고시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7951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79511)
- 보건복지부 (2025.01.09).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정책브리핑].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 민성길, 이창일, 김광일, 서신영, 김동기 (2000).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HOQOL-BREF)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39(3), 571-57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6367397>
- 박찬희, 장혜인, 김지범, 박태영, 황혜선 (2024). 빈곤누적위험과 청년층의 자살행동의 관계: 비자살적 자해와 습득된 자살잠재력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9(4), 567-599.  
<http://dx.doi.org/10.17315/kjhp.2024.29.4.003>
- 변금선, 김기현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 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8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018140>
- 윤성호 (2012).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 개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1), 53-9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35840>
- 장재윤, 김우영, 이태현 (2024). 자기-보고형 조사에서의 불성실 응답(IER)의 원인, 탐지, 예방: 개관 및 향후 연구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3(2), 87-128.  
<https://doi.org/10.22257/kjhp.2024.6.43.2.87>
- 장희선, 김기현 (2014).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누적적 위험 요인의 효과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85-216.  
[https://oak.go.kr/repository/journal/18939/NRF012\\_2014\\_n47\\_185.pdf](https://oak.go.kr/repository/journal/18939/NRF012_2014_n47_185.pdf)
- 조용래 (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판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2815>
- 통계청 (2024.12.25). 상대적 빈곤율 [보도자료].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56>
- Banyard, V., Hamby, S., & Grych, J. (2017). Health effects of adverse childhood events: Identifying promising protective factors at the intersection of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Child Abuse & Neglect*, 65, 88-98.  
<https://doi.org/10.1016/j.chiabu.2017.01.011>
- Barch, D. M., Shirtcliff, E. A., Elsayed, N. M., Whalen, D., Gilbert, K., Vogel, A. C., Tillman, R., & Luby, J. L. (2020). Testosterone and hippocampal trajectories mediate relationship of poverty to emotion dysregulation and depression. *Proceedings of*

-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36), 22015-22023.  
<https://doi.org/10.1073/pnas.2004363117>
- Bellù, L. G., & Liberati, P. (2005). *Impacts of policies on poverty: The definition of poverty* [FAO EASYPol Modul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https://mpira.ub.uni-muenchen.de/id/eprint/44644>
- Bonsaksen, T. (2012).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Mental Health Review Journal*, 17(1), 39-49.  
<https://doi.org/10.1108/13619321211231815>
- Bürgin, D., Clemens, V., Witt, A., Sachser, C., Jud, A., Brähler, E., Strauß, B., Petrowski, K., Schmid, M., & Fegert, J. M. (2023).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increase the risk for low perceived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 large-scale population-based study in Germany. *Child Abuse & Neglect*, 144, Article e106382.  
<https://doi.org/10.1016/j.chiabu.2023.106382>
- Caplan, G. (1993). Organization of preventive psychiatry program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9, 367-395.  
<https://doi.org/10.1007/BF00761035>
- Chaudry, A., & Wimer, C. (2016). Poverty is not just an indicat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poverty, and child well-being. *Academic Pediatrics*, 16(3), 23-29.  
<https://doi.org/10.1016/j.acap.2015.12.010>
- Choi, J. K., Wang, D., & Jackson, A. P. (2019). Adverse experien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ir longitudinal impact on later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Child Abuse & Neglect*, 98, Article e104181.  
<https://doi.org/10.1016/j.chiabu.2019.104181>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utstat.utoronto.ca/~brunner/oldclass/378f16/readings/CohenPower.pdf>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73-102.  
<https://doi.org/10.2307/1166139>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https://psycnet.apa.org/buy/2002-10732-001>
- Conroy, K., Sandel, M., & Zuckerman, B. (2010). Poverty grown up: How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impacts adult health.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31(2), 154-160.  
<https://doi.org/10.1097/DBP.0b013e3181c21a1b>
- Crouch, E., Probst, J. C., Radcliff, E., Bennett, K. J., & McKinney, S. H. (2019a). Prevalen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mong US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92, 209-218.  
<https://doi.org/10.1016/j.chiabu.2019.04.010>
- Crouch, E., Radcliff, E., Stropolis, M., & Srivastav, A. (2019b). Safe, stable, and nurtured: Protective factors against poor physical and mental health outcomes following



- exposure t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12, 165-173.  
<https://doi.org/10.1007/s40653-018-0217-9>
- Doidge, J. C., Higgins, D. J., Delfabbro, P., & Segal, L. (2017).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in an Australian population-based birth cohort. *Child Abuse & Neglect*, 64, 47-60.  
<https://doi.org/10.1016/j.chiabu.2016.12.002>
- Duncan, G. J., Ziol-Guest, K. M.,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9.01396.x>
- Evans, G. W. (2016). Childhood poverty and adult psychological well-be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52), 14949-14952.  
<https://doi.org/10.1073/pnas.1604756114>
- Evans, G. W., & Cassells, R. C. (2014). Childhood Poverty, Cumulative Risk Exposure, and Mental Health in Emerging Adults.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3), 287-296.  
<https://doi.org/10.1177/2167702613501496>
- Evans, G. W., & Kim, P. (2012). Childhood poverty and young adults' allostatic load: The mediating role of childhood cumulative risk exposure. *Psychological Science*, 23(9), 979-983.  
<https://doi.org/10.1177/0956797612441218>
- Evans, G. W., & Kim, P. (2013). Childhood Poverty, Chronic Stress, Self-Regulation, and Coping.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7(1), 43-48. <https://doi.org/10.1111/cdep.12013>
- Extremera, N., & Rey, L. (2015). The moderator role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in the link between stress and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6, Article e1632.  
<https://doi.org/10.3389/fpsyg.2015.01632>
- Farooq, B., Allen, K., Russell, A. E., Howe, L. D., & Mars, B. (2024). The association between poverty and longitudinal patter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Findings from a prospectiv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the UK. *Child Abuse & Neglect*, 156, Article e107014.  
<https://doi.org/10.1016/j.chiabu.2024.107014>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https://doi.org/10.1016/S0749-3797\(98\)00017-8](https://doi.org/10.1016/S0749-3797(98)00017-8)
- Finkelhor, D. (2020). Trend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in the United States. *Child Abuse & Neglect*, 108, Article e104641.  
<https://doi.org/10.1016/j.chiabu.2020.104641>
- Gill, R., Karim, M. E., Puyat, J. H., Guhn, M., Petteni, M. G., Oberle, E., Janus, M., Georgiades, K., & Gadermann, A. M. (2025). Childhood poverty, social support, immigration background and adolescent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A population based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97(1), 165-179.  
<https://doi.org/10.1002/jad.12408>
- Giovanelli, A., Reynolds, A. J., Mondì, C. F., & Ou, S. R. (2016). Adverse childhood

- experiences and adult well-being in a low-income, urban cohort. *Pediatrics*, 137, Article e20154016.  
<https://doi.org/10.1542/peds.2015-4016>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https://doi.org/10.1023/B:JOBA.0000007455.08539.94>
- Han, K., Park, E., Kim, J., Kim, S., & Park, S. (2014). Is marital statu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2, Article e109.  
<https://doi.org/10.1186/s12955-014-0109-0>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ford Press. <https://www.processmacro.org>
- Hernández, J. E., & Zuluaga, B. (2022). Vulnerability to multidimensional poverty: An application to Colombian household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1), 345-371.  
<https://doi.org/10.1007/s11205-022-02961-2>
- Herzog, J. I., & Schmahl, C.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consequences on neurobiological, psychosocial, and somatic conditions across the lifespan. *Frontiers in Psychiatry*, 9, Article e420.  
<https://doi.org/10.3389/fpsy.2018.00420>
-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524.  
<https://pubmed.ncbi.nlm.nih.gov/2648906/>
- Hobfoll, S. E., & Schumm, J. A. (2002).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cation to public health promotion. In R. J. DiClemente, R. A. Crosby, & M. C. Kegler (Eds.), *Emerging theories in health promotion practice and research* (pp. 285-312). Jossey-Bass.  
<https://psycnet.apa.org/record/2009-19878-005>
- Huang, Y., Liu, H., & Masum, M.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ults: Assessing the mediating role of cumulative life course poverty.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35(5), 637-647.  
<https://doi.org/10.1177/0890117120982407>
- Jaggi, T. M., & Kumari, N. (2024).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subjective well-being and emotional regulation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Psychology*, 2(4), 1032-1059.  
<https://www.psychopediajournals.com/index.php/ijiap/article/view/247>
- Kalmakis, K. A., Meyer, J. S., Chiodo, L., & Leung, K.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hronic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ctivity. *Stress*, 18(4), 446-450.  
<https://doi.org/10.3109/10253890.2015.1023791>
- Kaplan, G. A., Shema, S. J., & Leite, C. M.

- A. (2008).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income, income change, and income sources during the course of 29 years. *Annals of Epidemiology*, 18(7), 531-537.  
<https://doi.org/10.1016/j.annepidem.2008.03.006>
- Kim, I., Kim, N., & Jang, H. (2023).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intersectionality of sex, race, and poverty in adolescents: A descriptive analysis. *Journal of Asia Pacific Counseling*, 13(1), 79-94.  
<https://doi.org/10.18401/2023.13.1.6>
- Kim, P., Evans, G. W., Angstadt, M., Ho, S. S., Sripada, C. S., Swain, J. E., Liberzon, I., & Phan, K. L. (2013).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and chronic stress on emotion regulatory brain function in adulthoo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46), 18442-18447.  
<https://doi.org/10.1073/pnas.1308240110>
- Lanier, P., Maguire-Jack, K., Lombardi, B., Frey, J., & Rose, R. A.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child health outcomes: Comparing cumulative risk and latent class approache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2, 288-297.  
<https://doi.org/10.1007/s10995-017-2365-1>
- Lee, H., Slack, K. S., Berger, L. M., Mather, R. S., & Murray, R. K. (2021). Childhood povert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health outcomes. *Health & Social Work*, 46(3), 159-170.  
<https://doi.org/10.1093/hsw/hlab018>
- Lee, K., & Lawton, C. (2022). The associ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ocial services use among head start-eligible low-income families. *Health & Social Work*, 47(3), 215-224.  
<https://doi.org/10.1093/hsw/hlac017>
- Leiting, M., Beck, K., Bürgin, D., Fegert, J. M., Jenkel, N., Boonmann, C., Schmeck, K., Crob, A., & Schmid, M. (202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quality of life and the mediating role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ness in youth residential care leaver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9(6), 3479-3499.  
<https://doi.org/10.1007/s11482-024-10392-z>
- Li, C., Xu, S., & Cheng, X. (2025). Effectiveness of poverty reduction programs on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of pover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4(6), 1460-1475.  
<https://doi.org/10.1007/s10964-025-02146-3>
- Liberzon, I., Ma, S. T., Okada, G., Shaun Ho, S., Swain, J. E., & Evans, G. W. (2015). Childhood poverty and recruitment of adult emotion regulatory neurocircuitry.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0(11), 1596-1606. <https://doi.org/10.1093/scan/nsv045>
- Magnuson, K., & Votruba-Drzal, E. (2009). Enduring influences of childhood poverty. In M. Cancian & S. Danziger (Eds.), *Changing poverty, changing policies* (pp. 153-179). Russell Sage Foundation.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5612267\\_Enduring\\_influences\\_of\\_childhood\\_poverty](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5612267_Enduring_influences_of_childhood_poverty)
- Maguire-Jack, K., Font, S., Dillard, R., Dvalishvili, D., & Barnhart, S. (2021). Neighborhood poverty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ver

- the first 15 years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n Child Maltreatment: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4, 93-114.  
<https://doi.org/10.1007/s42448-021-00072-y>
- Mersky, J. P., Choi, C., Lee, C. P., & Janczewski, C. E. (2021). Dispariti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by race/ethnicity, gender, and economic status: Intersectional analysis of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Child Abuse & Neglect*, 117, Article e105066.  
<https://doi.org/10.1016/j.chiabu.2021.105066>
- Metzler, M., Merrick, M. T., Klevens, J., Ports, K. A., & Ford, D. C. (2017).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life opportunities: Shifting the narrativ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2, 141-149.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6.10.021>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j.1467-9507.2007.00389.x>
- Notten, G., & Roelen, K. (2012). A new tool for monitoring (child) poverty: Measures of cumulative deprivation. *Child Indicators Research*, 5, 335-355.  
<https://doi.org/10.1007/s12187-011-9130-6>
- Pagliaccio, D., Luby, J. L., Bogdan, R., Agrawal, A., Gaffrey, M. S., Belden, A. C., Botteron, K. N., Harms, M. P., & Barch, D. M. (2015). Amygdala functional connectivity, HPA axis genetic variation, and life stress in children and relations to anxiety and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4(4), 817-833.  
<https://doi.org/10.1037/abn0000094>
- Palacios-Barrios, E. E., & Hanson, J. L. (2019). Poverty and self-regulation: Connecting psychosocial processes, neurobiology, and the risk for psychopathology. *Comprehensive Psychiatry*, 90, 52-64.  
<https://doi.org/10.1016/j.comppsy.2018.12.012>
- Patel, V., Burns, J. K., Dhingra, M., Tarver, L., Kohrt, B. A., & Lund, C. (2018). Income inequality and depress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of the association and a scoping review of mechanisms. *World Psychiatry*, 17(1), 76-89.  
<https://doi.org/10.1002/wps.20492>
- Poole, J. C., Dobson, K. S., & Pusch, D. (2018). D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redict adult interpersonal difficulties?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80, 123-133.  
<https://doi.org/10.1016/j.chiabu.2018.03.006>
- Radcliff, E., Crouch, E., Stropolis, M., & Srivastav, A. (2019). Homelessness in childhood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3(6), 811-820.  
<https://doi.org/10.1007/s10995-018-02698-w>
- Raver, C. C., Blair, C., Garrett-Peters, P., & Family Life Project Key Investigators. (2015). Poverty, household chaos, and interparental aggression predict children's ability to recognize and modulate negative emotion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3), 695-708.  
<https://doi.org/10.1017/S0954579414000935>
- Riediger, M., & Bellingtier, J. A. (2022). Emotion regulation across the lifespan. In D. Dukes,

- A. C. Samson, & E. A. Walle (Eds.), *The Oxford Handbook of Emotional Development* (pp. 92-109).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8855903.013.6>
- Rudenstine, S., Espinosa, A., McGee, A. B., & Routhier, E. (2019). Adverse childhood events, adult distress, and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Traumatology, 25*(2), 124-132.  
<https://doi.org/10.1037/trm0000176>
- Salinas-Miranda, A. A., Salemi, J. L., King, L. M., Baldwin, J. A., Berry, E. L., Austin, D. A., Scarborough, K., Spooner, K. K., Zoorob, R. J., & Salihu, H. M.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adulthood: Revelations from a community needs assessment.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3*, Article e123.  
<https://doi.org/10.1186/s12955-015-0323-4>
- Sanders, A. E., Lim, S., & Sohn, W. (2008). Resilience to urban poverty: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for population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6), 1101-1106.  
<https://doi.org/10.2105/AJPH.2007.119495>
- Santiago, C. D., Kaltman, S., & Miranda, J. (2013). Poverty and mental health: How do low income adults and children fare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2), 115-126.  
<https://doi.org/10.1002/jclp.21951>
- Santiago, C. D., Wadsworth, M. E., & Stump, J. (2011). Socioeconomic status,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verty-related stress: Prospec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syndromes among diverse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2*(2), 218-230.  
<https://doi.org/10.1016/j.joep.2009.10.008>
- Shaefer, H. L., Lapidos, A., Wilson, R., & Danziger, S. (2018). Association of income and adversity in childhood with adult health and well-being. *Social Service Review, 92*(1), 69-92. <https://www.jstor.org/stable/26500208>
- Sinha, B. R. K. (2019).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quality of life issues: A spatial analysis*. Springer Singapore.  
<https://doi.org/10.1007/978-981-13-6958-2>
- Sloan, E., Hall, K., Moulding, R., Bryce, S., Mildred, H., & Staiger, P. K. (2017). Emotion regulation as a transdiagnostic treatment construct across anxiety, depression, substance, eat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57*, 141-163.  
<https://doi.org/10.1016/j.cpr.2017.09.002>
- Steele, L., Dewa, C., & Lee, K. (2007).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reported barriers to mental health service use.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2*(3), 201-206.  
<https://doi.org/10.1177/070674370705200312>
- Stryzhak, O.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income, economic freedom and happiness. *SHS Web of Conferences, 75*, Article e03004.  
<https://doi.org/10.1051/shsconf/20207503004>
- Teicher, M. H., & Parigger, A. (2015). The “Maltreatment and Abuse Chronology of Exposure” (MACE) Scale for the retrospective assessment of abuse and neglect during development. *PLOS ONE, 10*(2), Article

- e011742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17423>
- The WHOQOL Group. (1998).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logical Medicine*, 28(3), 551-558.  
<https://doi.org/10.1017/S0033291798006667>
- Umeda, M., Oshio, T., & Fujii, M. (2015). The impact of the experience of childhood poverty on adult health-risk behaviors in Japan: A mediation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4, Article e145.  
<https://doi.org/10.1186/s12939-015-0278-4>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4). *2024 Global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Poverty amid conflict* [Report]. UNDP.  
<https://hdr.undp.org/content/2024-global-multidimensional-poverty-index-mpi>
- Vederhus, J. K., Haugland, S. H., & Timko, C. (2022). A mediational analysis of adverse experiences in childhood and quality of life in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31(1), Article e1904.  
<https://doi.org/10.1002/mpr.1904>
- Wade Jr, R., Shea, J. A., Rubin, D., & Wood, J. (201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f low-income urban youth. *Pediatrics*, 134(1), 13-20. <https://doi.org/10.1542/peds.2013-2475>
- Wahlbeck, K., Cresswell-Smith, J., Haaramo, P., & Parkkonen, J. (2017). Interventions to mitigate the effects of poverty and inequality on mental healt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2, 505-514.  
<https://doi.org/10.1007/s00127-017-1370-4>
- Walsh, D., McCartney, G., Smith, M., & Armour, G. (2019).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socioeconomic position and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73(12), 1087-1093.  
<https://doi.org/10.1136/jech-2019-212738>
- Weissberg, R. P., Kumpfer, K. L., & Seligman, M. E. P. (2003). Prevention that works for children and youth: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8(6-7), 425-432.  
<https://doi.org/10.1037/0003-066X.58.6-7.425>
- Wise, P. H. (2016). Child poverty and the promise of human capacity: childhood as a foundation for healthy aging. *Academic Pediatrics*, 16(3), 37-45.  
<https://doi.org/10.1016/j.acap.2016.01.014>
- Wong, Y. C., Wang, T. Y., & Xu, Y. (2015). Poverty and quality of life of Chinese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depr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3), 236-247. <https://doi.org/10.1111/ijsw.12115>
- Ziebold, C., Evans-Lacko, S., Andrade, M. C. R., Hofmann, M., Fonseca, L., Barbosa, M., Pan, P. M., Miguel, E., Bressan, R., Rohde L. A., Salum, G., Schafer, J., Mari, J. D. J., & Gadelha, A. (2023). Childhood poverty and mental health disorders in early adulthood: Evidence from a Brazilian cohort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5), 903-914.  
<https://doi.org/10.1007/s00787-021-01923-2>

원고접수일 : 2025. 06. 07.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7. 24.

게재확정일 : 2025. 08. 01.

## Indirect Effe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hood Emotion Dysregulation on Quality of Life among Adults with Childhood Poverty Experiences\*

Myeong-eun Noh<sup>1)</sup>

Hyunjung Choi<sup>2)†</sup>

<sup>1)</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Student

<sup>2)</sup>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reventive strategies for quality of life (QoL) problems in adults who experienced multidimensional childhood poverty. We examined the indirect effec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poverty and current QoL. Cross-sectional data from 292 adults in their 20s-30s who reported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during childhood were collected from an online panel community sample. To ensure current diverse economic backgrounds, individuals with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s below and above the median 60% were equally collected. Indirect effects of ACEs and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childhood poverty and current QoL were identified. Childhood poverty and QoL were also mediated by emotion dysregulation alone. We discussed that early detection of ACEs and providing diverse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opportunities for children in impoverished environments are crucial. Additionally, preventive strategies focused on developing emotion regulation skills may help prevent poor QoL in adulthood.

*Keywords* : childhood povert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emotion regulation, quality of lif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funding for the academic research program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4. Pilot analysis of this study was presented as an e-poster at the 2025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 Corresponding author: Hyunjung Choi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28644)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Republic of Korea  
Tel: 043-261-2179 / E-mail: hchoi@g.cbnu.ac.kr